



2026년 5월 24일(제1301호) **성령 강림 대축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본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전우, 우리 힘 사람이 성령의 궁진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전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우’는 전쟁 시 전장에서 같이 싸우는 동료, 즉 아군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지만, 군대의 일상 안에서서도 ‘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특히 훈련소나 부대에서는 ‘전우조’라는 체제 안에서 어디든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군 생활을 할 때를 떠올려보면 화장실에 갈 때나, 물을 마시러 갈 때 늘 전우들과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군종 장교로서 위문을 다닐 때 전우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훈련 때, 특히 행군할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짐을 지고 가면서도, 절대 혼자 짐을 지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군장이 너무나 무거워 버거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전우의 군장 아래에 자신의 손을 그윽이 가져다 댁니다. 전우를 돕기 위한 마음, 전우를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협조자, 보호자로 설명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영 안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역동하고 계십니다. 마치 내 뒤에 전우가 내 군장에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 손길을 뻗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의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나 자신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주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내맡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군장이 가벼운 것은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 전우의 손길이 있듯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선 앞에서 그 선을 잘 뛰어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조영리(하상비오로) 신부**  
**동해(제22보병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사도 2,1-11

### 회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 2 독 시

1코린 12,3ㄷ-7.12-13

### 부속기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돈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쌍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복음

요한 20,19-23

### 영성제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나는 신학생으로서 군중으로 임관되어 동래의 한 보병 대대에 배속된 후 연일 전선으로 투입되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신병들에게 역전 광장에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중교 강연을 실시하였다. 일장의 혼화를 끝내면 캐롤 안 몬시놀로부터 지원받은 목주와 성모패를 신자 병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때는 성당에 발걸음도 해보지 못한 비신자들까지도 천주교 신자로 돌변하는 것이었다. 목주를 받아 소중히 목에 거는 신자 병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병사 하나가 번쩍 손을 든다. ‘신부님, 저에게도 그것 하나 주이소’ ‘당신도 천주교 신자요? 본명이 무엇입니까?’ ‘네, 저의 본명은 마리아입니다.’ 들은 풍월은 있었던지 이 욕심 많은 병사는 그만 여자 본명을 대고 말했다. 그러자 역전 광장에는 때아닌 폭소가 터졌다. 나는 어이가 없었으나 목주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너도나도 옆에 앉은 신자 병사들이 장난기로 일러준 여자 본명 ‘데레사’ 혹은 ‘안나’ 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투어 목주와 성모패를 받았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은 목주나 성모패를 마치 부적이나 마스코트처럼 생각하고 이것만 몸에 지니면 하느님의 가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결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또한 캐롤 안 몬시놀로부터 매월 1백 드림의 분유를 지원 받아 허기지고 영양 실조에 걸린 보충대 신병들을 흡족하게 먹일 수 있었던 일은 참으로 흐뭇한 사랑의 봉사였다.

한편, 전방 사단에서 군중신부들을 보좌하며 활약한 민간인 전교회장들도 있었다. 유덕천(아벨)은 2군단 예하의 제3, 제6, 제7사단에, 김용승(라파엘)은 수도사단에 배치되어 반공 정신 교육, 인격 지도, 개인 상담 등의 일반 군중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들 이외도 순수 민간인 신분으로서 인근 군부대에서 사목활동을 전개한 신부들도 있었고, 후방부대(병원, 학교 등)에는 수녀들과 여성 전교회장들이 봉사하기도 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b>복</b>	<b>음</b>	<b>목</b>	<b>상</b>	<b>-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b>	<b>◆ ‘군중의 시집’ 3주차 프로그램</b> <b>&lt;군장병의 편지&gt; 원고 모집</b>
<b>우리들</b>					
		여기, 붉은 열정을 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게서 함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량: A4 반쪽~한쪽</li> <li>-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li> <li>- 기한: 연중 상시 접수</li> <li>-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li> <li>-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li> <li>-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li> </ul>	
		여기, 맑은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b>▶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b>					

성화이야기

성령 강림



원래는 생드니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에 걸리기 위해 제작되었던 작품으로(가로 길이만 8미터에 달한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순간을 맞이하는 각각각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 레스투(Jean Restout, 1692-1768)  
1732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465x778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위쪽 중앙에 앉아 계신 성모님은 이미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듯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주위를 둘러싼 사도들은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람, 경외, 혼란, 깨달음이 동시에 교차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인물은 이 그림에서 매우 인상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머리를 옷으로 깊이 뒤집어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마치 갑작스럽게 임한 신적 현상, 곧 성령의 현존 앞에서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의 자세는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반응으로 읽히며, 성령의 강렬한 힘이 인간에게 얼마나 압도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신비 앞에 놓인 인간의 상태를 대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와 대비되게 다른 인물들은 점차 위로 시선을 들고 손을 펼치며 성령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어떤 이는 몸을 크게 뒤로 젖히며 놀람을 표현하고, 또 어떤 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면의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인다. 이러한 다양한 동작과 표정은 성령의 은총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각 사람 안에서 다르게 체험되고,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신앙의 여정은 사람마다 다르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실지는 오직 각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령 강림 대축일: 정통오리정 윤대상 신부

◆ 교구장 동정

- 서울대교구 신대방동 성당 미사

때: 5월 24일(주일) 11:00

- 2026년 사제 하계 수련회

(사제 성화의 날, 전역 축하 미사)

때·곳: 5월 26일(화)~29일(금),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